



특집 / 월드컵과

에이즈 II

월드컵에 대비한 에이즈예방사업

“월드컵 코리아”가 “에이즈 코리아”가 되지 않도록

월드컵 대비 에이즈예방사업의 기본 목표는 에이즈 감염율이 높은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협회의 월드컵 대비 에이즈예방사업은 크게 홍보사업, 교육사업, 캠페인사업과 이들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사업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매체 이용한 홍보사업

홍보사업의 주요 타깃그룹은 일반대중이다. 월드컵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연령, 성별, 지역을 초월하여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에이즈예방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홍보사업이라 할 수 있다.

홍보사업의 주요 목표는 단시간내에 일반대중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홍보사업으로는 주간지 광고, 지하철 광고, 라디오 공익캠페인 광고,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가 있다.

지난 3월초 이미 시사저널 644호 별책부록인 “월드컵 10배 즐기기”에 에이즈예방 홍보광고를 1회 게재했으며 앞으로 월드컵에 임박하여 한번 더 주간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월드컵 10배 즐기기”는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와 공동 기획되어서 28만 부가 이미 배포됐으며 월드컵대진표, 일정 및 각국 선수 프로필 등 유용한 정보가 많아 대회기간 내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출입문 스티커 광고도 현재 서울시 지하철 2,3,4호선에 이미 부착하여 4월부터 아시안 게임이 끝나는 9월까지 총 6개월간 1,110량에서 홍보 중이다. 지하철광고의 접촉빈도 효과는 TV와 신문 다음으로 높아서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라디오 공익캠페인 광고는 현재 KBS FM(89.1 MHz)과 SBS FM(107.7 MHz)에서 월드컵 대회 기간중인 6월 한달간, 총 120회 에이즈예방 메시지를 방송할 예정이다. 차량 출퇴근자의 대부분이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을 보면 TV광고 못지 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온라인 홍보로서, 기존 협회 홈페이지(www.aids.or.kr)에 월드컵 관련 콘텐츠를 올려 네티즌 대상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을 위한 교육

다음은 고위험군 대상 교육사업이다. 교육사업의 목표는 월드컵 기간 중에 외국인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을 하여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 집단은 관광·유흥·숙박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직업별로 보면 여행사 직원, 호텔종업원, 여행 가이드, 성 매매종사자, 유흥업소 종사자(비노출 성 매매 종사자 포함) 등이 해당된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기존의 집단교육과 더불어 총 300회가 10개 월드컵 개최지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캠페인

캠페인은 크게 이동홍보캠페인과 개인택시 연계캠페인, 감염인·동성애자단체 연계캠페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동홍보캠페인은 10개 월드컵 개최지를 중심으로 대회기간 중, 특히 대회 당일 경기장 주변과 시내 중심지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가동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한다.

다른 에이즈 예방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도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으므로 공동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개인택시연계캠페인은 교통봉사 등 공익캠페인에 앞장서온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와 공동주관하는 캠페인으로 탑승 승객을 대상으로 차량내에 에이즈예방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부착하고 리플렛 등을 비치하여 이들에게 에이즈예방 지식과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미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소속 택시에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택시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감염인·동성애자 단체 연계 캠페인의 목적은 에이즈에 취약집단인 동성애자 단체 및 감염인 단체와 협력하여 에이즈예방사업을 함으로써 취약집단 대상 에이즈예방사업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



스티커, 콘돔 등 배포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홍보물량지원과 공동캠페인 등이 있고 특히 전국의 게이 바, 사우나, 노래방, 레즈비언 바 등에 포스터나 리플렛, 콘돔을 배포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취약집단이 에이즈예방 사업의 주체로 나서고, 접근이 힘든 집단에 대해 동료집단을 사업주체로 내세워 사업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을 하는 데는 막대한 홍보교육불량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다양한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들을 개발, 제작, 배포중이다. 비디오,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 콘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디오는 일반인 및 고위험군 대상으로 각 1종씩 2종 제작하며, 홍보포스터는 월드컵용 2종, 아시안게임용 1종, 동성애자 배포용 1종이 있다. 리플렛은 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4-5종으로 제작하여 월드컵 기간 중 주변국의 응원단 및 관광객 대상으로 배포 될 예정이다. 스티커는 택시 연계 캠페인 시 차량 부착용으로 소요될 것이며, 콘돔 역시 대량 제작하여 캠페인이나 보건소, 관련 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한다.

